

17세기의 犁耕法 및 鋤地法

黃 齋 起 · 李 鎬 澈

慶北大學校 農科大學 農業經濟學科

The Technologies of Plowing and Hoeing in 17th Century

Hwang, Youn Gi · Lee, Ho Chol

Dept. of Agric., Economics. Coll. of Agric., Kyungpook Natl. Univ.

Summa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gricultural technologies through plowing and hoeing. One of the purposes on which this study is to analysis process of development and divergence of plough and hoe. The following facts are significant findings ;

1. In early Yi - dynasty, tilling implements used by ard plough and mould board plough did use in three south province, most region mainly used ard plough. Therefore, farming in early Yi - dynasty is extensive.
2. The mould board plough diffused in many farm house, spring farming and autumnfarming formed complet system in early 17th Century . But works of hoeing was continuing to save labor by long hand hoe.
3. Finally in 17th century, Small - scale independent farming ceaselessly tried to make his basis with transtortation intensive farming method. But Small - scale independent farming had not stafely base because extensive farming method continued in this peorid.

I. 序 言

이 연구는 우리 전통농법의 전환기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동기였다고 생각되는 17세기 農法研究의 첫걸음을 犁耕¹⁾과 鋤地法²⁾, 그리고 그에 사용된 農具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한 발상은 조선후기의 획기적인 사회경제적 전환에는 農業生産力의 획기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는 무수한 기존 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

그 동안 자본주의 맹아구명을 위해 흔히 전제되었던 조선후기 집약적 農法의 발전이란 명제는 무엇보다 그 생산수단(노동도구)이었던 農具와 그 사용법의 발달이란 측면에서부터 연구가 출발되어야만 하였다. 그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농업구조로의 전환과 그 발전을 규명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불행히도 노동수단 발전의 분

석은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의 農業史 연구들은 犁에 있어서는 朝鮮前期 無鑿犁에서 後期에 有鑿犁로 발전하였으며 鋤에 있어서는 朝鮮前後期를 막론하고 短柄鋤에 의한 집약적인 鋤地作業이 이루어졌다는 불명확한 가설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본고는 조선시대의 분기점이라 보여지는 17세기의 犁耕과 鋤地法을 農書분석에다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헌연구는 각 農書들이 갖는 지역적 범위와 실제 어느정도 관행되었는지 여부를 완벽히 밝힐 수 없다는 자기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 시대 농업발전이 갖는 전 구조의 규명에는 이같은 ‘려’ ‘서’로 대표되는 ‘犁耕’ 및 ‘鋤地’ 뿐 아니라 ‘숙치’ ‘부종’ ‘수확’ ‘탈곡’ ‘저장’ ‘도정’ 등의 작업에 사용된 다양한 농구들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여기에 대한 시도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II. 朝鮮前期 犁耕과 鋤地法

1. 耕起作業

耕起作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경생활의 시

작과 더불어 행해진 가장 중요한 농작업이다. 신석기시대의 掘耨이나 石犁에서 耨耨과 같은 본격적인 手耕具로, 축력전인의 耕犁에 의한 耕起作業의 발전은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耕起作業은 크게 秋耕과 春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선전기 대표적인 농서인 『農事直說』을 중심으로 조선전기의 耕起作業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1) 秋耕作業

『직설』에서 행해진 각 작물의 秋耕作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₁. 早稻秋收後 擇連水源肥膏水田 耕之(『農事直說』 種稻附早稻編)

A₂. 葉盡收之 收訖耕之 以擬明年不耕則無澤(『農事直說』 種大豆小豆菘豆編)

A₃. 大抵治田之法 秋耕過冬爲上 粟田尤甚(『農事直說』 種黍粟附占勿谷粟青梁粟編)

이들보면 비교적 우등지인 水田·黍粟田·大豆田에서 다음해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秋耕을 행하였던 것이다. 秋耕作業은 掩耕과 같이 토양을 완전히 같이엮음으로서 지력증진 뿐만 아니라 잡초와

- 1) 이 연구에서 ‘쟁기작업’이라 하지 않고 ‘犁耕法’이라 지칭한 것은 다음의 이유이다. 이른바 조선전기 저서인 『訓蒙字會』에는 犁의 종류에 따라 ‘보’ ‘발외’ ‘리’으로 불리었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장기’ ‘호리’ ‘후치’ 등 다양한 犁에 의한 耕起作業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쟁기(장기)는 당시 사용되던 많은 犁耕중의 하나였을 뿐 아니라 18세기 말까지의 어느 농서에서도 그 사용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이들 모든 종류의 犁에 의한 耕起作業을 총칭하여 犁耕法이라 지칭하였다.
- 2) 鋤地法 역시 ‘호미작업’이나 ‘제조작업’이라 칭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이른바 『訓蒙字會』에서는 ‘호미(鋤)’라는 칭호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거름한(鏟)’과 같은 鋤地具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어 鋤는 모든 鋤地具를 총칭하는 용어가 아니었으므로 호미작업이라 말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鋤地法은 春鋤와 夏鋤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mulch’형성 ‘定科’ ‘培土’ ‘파종구작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행하였으며 후자는 여름철의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작업이었다. 따라서 이를 굳이 ‘제조작업’이라고만 평가한다면 서지법의 본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3) 耨耨에 대해서는 “神農氏作 斲木爲耨 揉木爲耨”라 하여 통설적으로 耨는 耨의 柄, 耨는 그 끝에 달린 刃을 지칭하였다. 또한 『훈몽자회』에는 耨柄인 曲木을 耨라 하며 耨의 끝에 달린 刃을 耨라고 하여 이를 합쳐 ‘사보’라고 기술되었다. 한편 天野는 耨가 柄이 굽어 있고 그 하단이 갈라진 耨具이고 耨는 柄의 하단이 円頭형인 耨具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 (天野元之助, ‘스키의發達’, 『中國農業史研究』 御茶の水書房, 1962. pp707~14) 이들 두가지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耨耨’는 그 모두가 오늘날의 ‘사보’와 같은 인력수경구임이 틀림없다 하겠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도 시행되었던 것이다⁴⁾ 이와 같은 秋耕作業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全面反轉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秋耕作業은 선진적인 農法을 행한 삼남지방에서 비교적 우등지인 水田이나 일부 高田作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⁵⁾

2) 春耕作業

春耕作業은 각 작물에 따라 ① ‘初耕’만을 행한 것과 ② ‘初耕-再耕’을 행한 것 ③ ‘初耕-再耕-三耕’을 거친 것의 3가지 유형이 있었다⁶⁾ 먼저 再耕 이상을 거친 작물의 耕起作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 二月中旬耕地 以木斫(鄉名所訖羅) 熟治自三月上旬 至四月上旬 皆可種 種法與黍粟同 (『農事直說』種稷附姜稷編)

A. 正月水解擇良田 田多則歲易 耕之縱三橫三 布牛馬糞 二月上旬更耕之 (『農事直說』種麻編)

A. 早稻(鄉名山稻) 偏宜於高地及水冷處 然土大燥 則下成 二月上旬耕之 三月上旬至中旬 又耕之 作畝足種 (『農事直說』種稻附早稻編)

위의 사료들은 재배된 稷과 麻·早稻의 耕起作業을 나타낸 것이다. 稷의 경우는 2월중순에 耕起作業을 한 후 썩래로써 숙치하였다가 한달 후인 3월 상순에서 4월상순 사이에 犁耕하여 파종하였다. 또 한 麻의 경우는 正月에 얼었던 토양이 풀린후에 牛

馬糞을 뿌리고 犁耕한 다음 2월상순에 다시 耕起作業을 하여 파종한 것이다. 즉 再耕 이상을 거친 작물의 初耕은 시비와 관련되어 지력증진을 위해 深耕하였다. 이 水田의 경우도 역시 初耕은 지력증진을 위해 全面反轉耕이 행해졌던 것이다.

한편 再耕의 경우는 주로 作畝 및 파종구작성과 관련이 있었다. 作畝를 한 경우는 위의 사료A.에서와 같이 再耕하여 畝를 만든 후에 足種⁷⁾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비교적 우등지에 재배된 作物인 早稻·黍·粟·稷·大小豆·大豆(根耕) 등의 作畝를 위한 再耕은 全面反轉耕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大小麥·蕎麥과 같이 平坦한 후에 畝를 만들지 않고 바로 파종하는 경우나 그외의 파종구작성에는 兩則撥土耕이 행하여졌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행해진 間種法에서도 역시 作條犁에 의한 兩則撥土耕이 행해졌던 것이다.

2. 鋤地作業

우리나라와 같이 春우이 매우 심한데 비해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기후 조건에서는 무엇보다 鋤地作業은 그 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農作業이었음이 분명하다⁸⁾

먼저 水田에 있어서의 鋤地作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A. 早稻…… 苗生二葉 則去水以手耘(苗弱不可用鋤 然水渴土強 則當用鋤)……(每去水而耘 耘訖灌

- 4) 민성기는 掩耕을 “荒田 또는 척박한 田畝를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잡초 또는 穀苗를 갈아엎는 쟁기질”이라 정의하면서도 조선전기에 有鑿犁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설에 집착하여 作條犁를 교묘히 운행하여 全面耕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성기, “李朝犁에 대한 一考察(上)” 歷史學報89, 1980, pp161~8) 그러나 이 시기에 사용된 犁가 9인이 分耕할 정도로 대형이어서 빚겨 운행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미 有鑿犁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有鑿犁에 의한 掩耕은 반드시 全面反轉耕임이 분명하다.
- 5) 조선전기의 있어 秋耕은 “嶺南習俗勤儉 治水田必秋冬耕之 春又耕之” (『增補文獻備考』 권147, 田賦考7, p695)이란 기록에 따를 때 지역적으로는 영남지방에서만 행해졌으며 또한 水田에서는 반드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호철의 연구에 의하여도 『직설』에서는 水田과 黍·粟·稷·大小豆등 일부 旱田作物에서만 행해졌다. (이호철, 농구 및 수리시설, 『朝鮮前期農業經濟史』, 한길사, 1987, pp. 313~4)
- 6) 이호철, 농구 및 수리시설, 앞의 책, p317, 표2 ‘농사직설’의 犁耕類型別 作物分布’를 참조할 것.
- 7) “耕之 畝左右足種 交踏以水荏子與黍或粟相和” (『農事直說』種黍粟編)이라 하여 畝를 만든 후 좌우 뒷발꿈치로 번갈아 밟아가며 밟은 자리에다 파종하는 방법이다.
- 8) 農林省熱帶農業研究センター, 舊朝鮮における日本の農業試験研究の成果, 農林統計協會, 1971, pp. 6~14; 飯沼二郎, 日本農業の再發見—歴史と風土から, 日本放送出版協會, 1980, pp. 25~27

之……)……每耘訖 決去水 曝根 二日 後還灌水(耐風與旱) 苗長半尺許又耘以鋤(苗強可以用鋤 耘時以手援軟苗問土面 耘至三四度(禾穀成長 唯賴鋤功)
(『農事直說』種稻附旱稻編)

A₈. 乾耕……苗未成長 不可灌水 雜草生 則雖旱苗稿 不可停鋤(『農事直說』種稻附旱稻編)

A₉. 苗種法……(此法 便於除草)(『農事直說』種稻附旱稻編)

위의 사료들은 水田의 鋤地作業을 나타낸 것이다. 사료A₇, A₈에서 처럼 水田에 직파한 때에는 苗가 약하면 손으로써, 苗가 어느정도 강건해지면 鋤를 사용하여 3~4회의 鋤地作業을 하였다. 또한 水利 시설이 불안정해서 乾耕法을 행한 사료A₉의 경우는 不可停鋤라 하여 많은 鋤地作業을 지시하였다. 이는 除草의 목적도 있었지만 春耨을 막기 위한 각 우층형성에 커다란 목적이 있었다.⁹⁾ 그러나 사료A₈ 처럼 移秧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은 鋤地作業을 하였다.

한편 旱田의 鋤地作業에 대한 사료들은 다음과 같다.

A₁₀. 及苗長 間生雜草與科密處 鋤而去之 以土壅根 鋤地三度 勿以無草停鋤 待禾成長 兩畝間雜草茂盛 用一牛綱其口 徐驅耕之 勿致損禾(『農事直說』種黍粟附占勿谷粟青梁粟薊黍編)

위의 사료A₁₀에서는 苗間에 잡초가 생기거나 苗가 너무 밀집 되어 있으면 鋤地作業을 하라고 하고 3차에 걸친 鋤地作業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잡초가 너무 무성하여 鋤地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경우는 축력의 犁로써 除草作業을 함으로써 노동력부족에 대처하였던 것이다. 이외의 麥類나 菘豆·蕎麥 등은 거의 鋤地作業을 행하지 않았다.¹⁰⁾

3. 耕犁와 鋤

『直說』에서는 耕起作業에 사용된 犁의 종류, 크기와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자세히 기재하고 있지않

았다. 따라서 실제 『직설』에서 사용된 犁가 有鑿犁인지 作條犁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¹¹⁾ 犁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선전기의 저술인 『訓蒙字會』에 ‘보’ (犁) · ‘밭외’ (把犁) · ‘궂’ (耕畦犁) 이라는 3종류의 犁가 실려있다.¹²⁾ 이미 앞의 耕起作業에서 주지하듯이 비록 삼남지방의 일부 우등지에 한해서 秋耕이나 掩耕, 그리고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는 全面反轉耕이 행해졌다. 무엇보다 이는 有鑿犁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보’ (犁) 라고 한 것이 有鑿犁로서 全面反轉耕에 사용되었다. 특히 有鑿犁는 이미 일본서기에도 10세기경에 존재하였고 일본 학자들도 우리나라에서 犁가 도입되었다고 보고있어¹³⁾ 일찍부터 有鑿犁가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양우견인외 大型犁라 생각되어지므로 아무래도 넓은 농지와 다수의 역축들을 소유하였을 양반사대부층의 독점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있어 가장 지배적이었던 春耕作業에서는 ‘보’에다 별을 떼어낸 大型의 作條犁와 같은 것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間種의 경우나 除草作業과 같이 보다 소형의 犁가 요구되는 곳에선 밭외와 같은 一牛견인의 作條犁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외에도 手耕具인 ‘사다보’ ‘가래’ 등이 사용되었다. ‘사다보’는 주로 돌이 많거나 草木이 무성하여 犁耕할 수 없는 곳에 사용되었으며, 가래는 『직설』에서 그 사용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農作業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다음은 鋤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朝鮮前期 鋤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들이 잘 묘사해 주고 있다.

A₁₁. 清晨荷鋤南畝歸 露溥溥猶未晞(『衿陽雜錄』農謳, 二曰捲露)

A₁₂. 捲邨長鋤插腰間 行赴村墟戴鴉還(『衿陽雜錄』

9) 이호철, “朝鮮前期의 鋤地農法”, 全國歷史學大會29, 經濟史學會, p163

10) 이호철, “朝鮮前期의 鋤地農法”, 앞의 책, pp. 164~5

11) 이에 대하여 민성기는 朝鮮前期에는 無鑿犁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민성기, 李朝犁에 대한 一考察(上), 歷史學報, 1980, 165~8) 반면 이호철은 有鑿犁와 無鑿犁가 동시에 존재하였고 특히 ‘보’는 有鑿犁이고, ‘밭외’는 作條犁, ‘궂’은 畝를 만드는 데 사용된 耕畦犁라고 주장(이호철, 농구 및 수리시설, 『朝鮮前期農業經濟史』, pp. 319~26) 하였다.

農謳 十三日日脚山)

A₁₃. 但此火田 本無定地 深山之民 長柄大鋤 (『經世遺表』, 地官修制 田制.)

위의 사료A₁₁의 荷鋤라는 표현은 鋤를 맨다는 뜻이므로 이는 長柄鋤임이 분명하다. 또한 사료A₁₂, A₁₃에서 長柄鋤 長柄大鋤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전기 鋤의 형태는 長柄鋤위주였다. 이를 더욱 뒷받침하여 주는 것은 『訓蒙字會』에 나타난 ‘鍤’·‘鋤’·‘鏹’·‘鍤’·‘鍤’의 다섯종류중중에 鍤을 제외한 4종류가 바로 長柄鋤인 것이 이를 분명히 해 준다. 그러나 短柄鋤 역시 定科와 같이 長柄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외 대부분의 除草작업이나 각우층형성·배토작업등에는 주로 長柄鋤가 作條犁와 더불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전기 犁耕과 鋤地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耕起作業은 秋耕과 春耕이 행해졌지만 秋耕은 삼남의 일부 우등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행해졌을 뿐 대부분 春耕作業이 지배적으로 행해졌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한 全面 反轉耕에 사용된 有鋤犁 역시 양반사대부가의 독점물로써 이 시기는 大型의 作條犁에 의해 노동생산성 위주의 耕起作業이 행해졌음이 분명하다.

한편 鋤地作業에 있어서도 일부 水田이나 黍粟田의 경우는 많은 鋤地作業이 이루어졌지만 그외의

작물은 그다지 많지않은 鋤地作業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鋤地作業은 長柄鋤에 의해 노동생산성 위주의 조방적인 鋤地作業이 이루어졌다.¹²⁾ 따라서 朝鮮前期에는 토지는 풍부한 반면 인구는 부족한 상황에 적합한 조방적인 農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농업조건 아래서 소농민경영은 극히 불안정하였을 것이며 오히려 농장경영이 사회적 생산의 주축을 이루었으리라 생각된다.

Ⅲ. 17세기 犁耕과 鋤地法

두차례의 전란을 극복하면서 맞은 17세기에는 사회변동 뿐만 아니라 農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깔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와같은 농업발전은 흔히 移秧法의 급속한 확산으로만 일반화하고 있으나 다른 농법의 측면에서도 심층분석이 절실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7세기 農書를 중심으로 耕起作業과 鋤地作業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耕起作業

1) 秋耕作業

秋耕作業은 이미 『직설』에서 지력증진을 위하여 예외적이거나 행하여졌는데 이 시대 秋耕作業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2) 『訓蒙字會』, 器皿

13) 飯沼二郎, 屈尾尚志, 『農具』, 法政大學出版局, 1984, pp. 60~1

14) 이에 대해서 宮嶋博史는 ‘가래’ ‘팽이’라는 인력농구체제가 조기적으로 이루어져 소농민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宮嶋博史, “李朝後期農書の研究”, 人文學報43, 1977, p3) 그러나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직설』에는 어느 곳에도 ‘가래’ ‘팽이’의 사용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耕起作業이 축력에 의해 행해진 대농법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하겠다.

15) 조선전기 鋤의 형태에 대해서는 통설적으로 短柄鋤에 의해 집약적인 鋤地作業이 행해졌다고 하였다. 특히 宮嶋博史는 ‘호미’라는 조선특유의 인력농구인 短柄鋤에 의한 鋤地作業을 근거로 집약적 농법이 행해졌다고 보았고 민성기 역시 鋤의 형태에 대해서 조선후기 사료를 근거로 短柄鋤에 의한 鋤地作業이 행해졌다고 추정하였던 것이다. (宮嶋博史, 앞의 논문, p69; 민성기, “東아시아 古農法上の 耨耜考”, 省谷論叢10, 1979, pp. 122~132) 이에 대해서 이호철은 모두 조선후기 기록들을 근거로 조선전기 鋤의 형태를 규명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長柄鋤에 의한 노동절약적 鋤地作業이 행해졌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호철, 鋤地法, 『朝鮮前期農業經濟史』, 1987, pp. 171~8) 조선전기적 농업조건 아래서 아무런 문헌사료의 뒷받침없이 행해진 그와 같은 맹목적인 주장은 전혀 옳지 못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료를 근거로 조선전기 鋤의 형태를 규명한 것은 기본적인 잘못이 아닐까 한다.

B₁. 水田多生芻草則 是月可反耕 如此兩年則 絕不生 (『農家月令』¹⁶⁾ 十月中小雪)

B₂. 收餘穀 反耕早田 作小骨港 擬付凍耕 (『農家月令』 十月中小雪)

B₃. 雨後反耕木花田 及來歲欲種木花之田也 (『農家月令』 十月中小雪)

B₄. 大凡秋間收成之後 須趁冬月 便將田段一列犁翻 凍令酥脆 至三月以後 更多著遍節次犁杷 自然田泥深熱 土肉肥厚楊種長 (『農家集成』¹⁷⁾ 農事直說 朱子第一勸農文)

B₅. 春耕宜遲 秋耕宜早 遲者以春凍漸地氣始通 雖堅硬 雖土亦可 犁相宜早者 欲乘先氣未寒 將陽和之氣 奄在地 中也 (『閑情錄』¹⁸⁾ 治農 習儉)

위의 사료B₁에서는 벼를 수확하고 난 水田에 雜草가 무성할 때 反耕하여 잡초제거와 동시에 지력을 증진하였다. 또한 다음 사료B₂를 보면 旱田에서도 역시 수확을 한 다음 反耕하여 지력증진을 꾀하였다. 특히 사료B₃를 보면 17세기에 들어와 삼유작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재배된 木花의 경우도 가을에 反耕하여 지력의 손실을 최대한 막는 耕法이 취해졌던 것이다. 이른바 秋耕作業으로서 反耕은 지력증진을 위해 有鋤犁에 의한 全面反轉耕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더구나 조선전기에 비해 根耕이 보다 널리 행해지고 있어 지력의 증진은 한층 더 요구되었을 것이다. 사료B₅은 이와같은 秋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秋耕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한정목』은 최초로 秋耕의 시기와 春耕의 시기에 대해서도 자세

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른바 秋耕은 땅이 얼지않아 耕起作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빨리 행하여야 하고 春耕은 늦게 해야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전기 경상도의 일부 작물에서만 행해지던 秋耕作業은 이제 그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水田이나 旱田을 막론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 春耕作業

春耕作業은 ‘春耕宜淺’¹⁹⁾이란 표현처럼 파종구작성과 春우에 대처하기 위한 각우층형성에 그 목적이 있었다.

B₆. 播次稻 (前期折草 厚鋪其田 然後耕治落種) (『農家月令』 四月節立夏)

B₇. 性宜雜沙 燥田 二月中旬翻耕 三月上旬又耕之 以木斫然治 下種時更耕……畝間草茂 用一牛綱口徐徐耕之 勿致損傷 (『農家集成』 農事直說 種木花編)

B₈. 耕地宜徐 徐則 土軟牛不疲 土軟牛不渡 春夏耕宜淺 秋耕宜深 (一作 春耕宜深 秋耕宜淺) (『農書海月軒本』²⁰⁾ 耕地)

먼저 사료B₆은 水田의 春耕作業이다. 이는 『직설』의 春耕作業과 비교해 볼 때 再耕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월령』에서는 初耕의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대상지역이 비슷한 『직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正月解水 후에 행해졌을 것이다.²¹⁾ 『월령』에서 행해진 春耕作業을 보면 初耕은 解水후에 全面反轉耕해 놓았다가 前期에 베어는 풀을 덮은 후 4월에 再耕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水田의 春

- 16) 『農家月令』(1619년 光海君 11년)은 泰村 高尚顔의 遺作으로서 24절기별로 여러 작물의 재배법을 기록한 월령체의 사찬농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洪在炘가 嶺南大學校 東洋文化 6. 7 호(1968)에 실은 것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月令』으로 줄임.
- 17) 『農家集成』은 1655년 孝宗 6년 申淵에 의해서 편찬 간행된 농서이다. 특히 이는 그가 공주목사로 있을 때 편집한 것으로 『세종의 권농교문』 『주자권농문』 『農事直說』 『衿陽雜錄』 『四時纂要』 등이 수록되어 있다.
- 18) 『閑情錄』은 1610~17년(光海君 2년~9년) 경에 허균에 의해 편찬된 농서이다. 이는 허균이 관직을 잠시 떠났을 때 棄世退居하는 閑者를 위해 편찬한 것으로 농업에 관해서는 卷十六에서 治農의 方法을 기술하고 있다.
- 19) 『農事直說』 耕地編
- 20) 『農書(海月軒本)』은 경북 영일군에 위치한 황여일(조선중기의 문신)의 종가(海月軒)에서 이호철 교수가 발굴한 필사본의 농서이다. 여기에 실린 농법과 지질, 황여일의 생존시기 등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 『農家集成』 보다는 약간 빠른 17세기 중엽의 사찬농서라 추정된다.
- 21) 『직설』에서는 水田에 직파하는 경우는 대개 正月에 初耕하였다.

耕作業은 初耕은 물론 再耕 역시 草糞시비와 관련되어 全面反轉耕으로 행해졌음이 확실시된다.

한편 사료B₇에서 보여지듯이 木花田은 2월에 初耕으로서 翻耕하고 한달 후인 3월에 再耕을 거친 후 下種할 때 또 耕起作業을 하였다. 즉 木花田과 같이 우등한 旱田에 재배된 작물의 경우는 春耕으로써 初耕은 翻耕이라 한 것처럼 全面反轉耕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再耕 역시 畝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하였을 것이다. 다만 파종구를 만들기 위한 作業은 作條犁에 의한 兩則攪土耕으로 행해졌다. 특히 사료B₈은 17세기 들어 耕起作業이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른바 春耕의 경우라도 그것이 初耕이면 有鋤犁으로써 全面反轉耕을 하라고 하여 조선전기와는 달리 대부분의 작물의 경우 春耕은 再耕이상을 행하였음을 밝혀준다. 이른바 조선전기에는 단지 水田과 우등한 旱田作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해지던 全面反轉耕이 이제 春耕일지라도 그것이 初耕인 경우에는 지력유지를 위해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종구작성이나 제조작업에는 作條犁에 의한 兩則攪土耕이 행해졌다.

2. 鋤地作業

먼저 水田의 鋤地作業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들에서 잘 서술되어 있다.

B₁₀. 水田耕種 早晚不齊 異於木花 故不言 耘草之節目 要在斟酌而已 大槩稻田宜耘四次 秧田及根耕田宜二次 (『農家月令』雜令)

B₁₁. 掩時 耕熟水田 約六爲一叢 莖六棵爲一行 種行且直 以便耘 (『閑情錄』治農 習儉)

B₁₂. 反種法 水田無水 雜草荒無 未易除去處 待水取 禾苗至損傷束如移秧者 反耕更種 一如苗種法則 鋤地甚省 人力不足 難於除草 則亦行此法 (『農家集成』農事直說 早稻秧基編)

B₁₃. 禾苗至兩三葉則 先放水 乾草量宜勿 布以火焚之 卽爲灌水則 雜草盡死 苗長日苗雖不鋤 耨所收倍 (『農家集成』農事直說 火耨法)

위의 사료B₆에서는 水稻은 早種과 晚種에 따라 鋤地作業의 시기는 다르지만 대개 水田에 直播하는

경우는 4회에 걸친 많은 鋤地作業을 행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반면에 移秧을 한 경우에는 2회만의 鋤地作業을 하였었다. 또한 사료 B₁₁은 移秧을 할 때에는 苗의 열을 잘 맞추어준다면 鋤地作業이 보다 편리하다고 하여 移秧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같이 17세기 移秧法 보급의 기본성격은 토지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鋤地作業에서 노동력부족에 잘 대처하기 위한 이른바 노동생산성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까지만 해도 수리조건이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春旱으로 인해 무성해진 雜草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즉 사료 B₁₁에서와 같이 春旱이 심해 水田에 물이 없어 잡초가 무성하여 제조작업이 어려운 때에는 禾苗가 상하지 않도록 묶어 옮겨두었다가 축력의 犁으로써 反耕하여 다시 移秧하는 것과 같이 심으면 鋤地作業의 노력이 한층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春旱으로 인해 제조작업이 어려운 때가 아니라도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축력의 犁으로써 反耕하면 제조작업의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다. 이는 有鋤犁으로써 이미 재배되고 있던 水田을 완전히 갈아엎음으로서 除草作業과 耕起作業을 동시에 하여 노동력부족에 대처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鋤地作業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료 B₁₃에서 특히 잘 나타나 있다. 이른바 火耨法이라 하여 苗가 양쪽으로 2~3엽 정도 나왔을 때 물을 빼고 건조를 고르게 펴고 불을 지른 후에 다시 물을 대면 잡초는 모두 죽고 苗만 남는다는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한 노동절약적인 鋤地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절약적인 除草法은 관수와 배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곳이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리시설이 미비하였던 이 시기에 있어 火耨法이 과연 어느정도 관행되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아직 『집성』의 단계에서는 이 『火耨法』의 존재로 보아 이양법이 수리안전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이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水田農法에서 反種法·火耨法이 이양법의 보급과 더불어 권장되었다는 사실로 보더라도 이 시대에는 그 모두가 노동력을 절감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22) 草糞에 대해서 서유구는 “草耕禮有殺草糞田 購之 大今農家每於 三月竹生刈畚田 美商熟糞”(『杏蒲志』卷二 淤蔭)이라 기록하고 있다.

위한 농법이 일관되게 개발되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음은 旱田作物의 鋤地作業을 살펴보자.

B₁₄. 耘麥田 (『農家月令』三月清明)

B₁₅. 再耘麥田 (不及麥田者 一耘亦可) (農家月令) 四月立夏)

B₁₆. 散種以推介掩土 鋤不壓多 待其長成畝間草茂 一牛綱口 徐徐耕之 勿致損傷 (『農家集成』農事直說 種木花)

위의 사료는 麥田과 木花田의 鋤地作業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麥田은 3월 청명과 4월 입하에 각각 鋤地作業을 하였다. 이것은 『직설』에서 단지 1회만의 鋤地作業을 한 것에 비해 1회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월령』의 단계에서도 역시 세주에서처럼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1회만의 鋤地作業을 하여도 좋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농가에서는 2회의 鋤地作業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점차 널리 보급된 旱田에 根耕한 경우는 앞의 사료 B₁₀에서 지시하듯이 2회의 鋤地作業을 하였다. 根耕을 한 경우에는 2회의 적은 鋤地作業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前穀을 수확하고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有鋤犁로써 全面反轉耕을 하는 과정에서 除草作業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木花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많은 鋤地作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木花田은 특히 많은 鋤地作業을 행하였으며 苗間에 잡초가 무성한 경우는 一牛견인의 作條犁로써 제초작업을 행하였다. 이는 『월령』의 木花田이 손·鋤·作條犁에 의해 7회에 걸친 鋤地作業이 행해진 것에도 알 수 있다.²³⁾ 이처럼 木花田에 많은 鋤地作業을 행한 것은 木花가 섬유 작물이나 세공물로써 중요한 작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정록』은 旱田의 파종법인 ‘點種法’ ‘條種法’ 등을 소개하면서 한결같이 鋤地作業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7세기 犁耕과 鋤地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前期에는 예외적으로 행해지던 秋耕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어 秋耕과 春耕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특히 秋耕은 물론 春耕에 있어서도 대개 再耕이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秋耕과 春耕의 初耕은 有鋤犁에 의해 全面反轉耕이 행해졌다. 또한 有鋤犁에 의한 全面反轉耕은 根耕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더욱 많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파종구작성이나 苗間의 잡초제거 등에는 作條犁에 의한 兩則撈土耕이 행해졌다. 이와 같이 犁耕에 있어서는 점차 토지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약적 농법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그와는 달리 鋤地作業에 있어서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른바 水田에 있어서 移秧法의 보급과 反種法·火耕法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農法임을 밝혀준다. 뿐만 아니라 旱田에 있어서도 ‘點種法’·‘條種法’의 소개 역시 노동생산성 제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木花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매우 집약적인 鋤地作業이 행해졌다. 그러나 17세기 농법을 대별해 보면 犁耕에 있어서는 점차 보다 노동집약적 농법으로 전환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반면 鋤地作業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법이 계속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17세기 犁耕 및 鋤地法의 성격을 진단해 볼때 조선전기 조방적 농법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과도기적 전환기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IV. 犁와 鋤의 분화 및 발전

이상에서 17세기 耕起作業과 鋤地作業을 살펴보았다. 17세기 들어와 점차적인 농법의 변화는 반드시 중요한 생산수단인 農具와도 밀접한 내적관련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조선후기 여러 농서에서는 ‘農器’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중

23) 『월령』에서 행해진 鋤地作業을 보면 다음과 같다.

‘四月中小滿：初耘木花田(第一次)’ ‘五月節芒種：耕木花田(第二次)’ ‘五月中夏至：耕木花田(第三次)’ ‘六月節小暑：耘木花田(第四次)’ ‘七月節立夏：耘木花田(第六次)’ ‘七月中處暑：耘木花田(第七次 不用鋤以手去草而已)’ 이른바 『월령』의 鋤地作業은 한결기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며 손에 의해 1차, 作條犁에 의해 2차, 鋤에 의해 3차가 행해지는 등 모두 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요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農具가 이 시대 생산력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1. 犁의 형태

耕起作業은 조선전기에 이미 축력전인의 犁로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이 手耕具로서는 作業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농업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17세기 犁耕의 발전은 犁의 분화와 발전이 그 토대를 이루었으리라 생각된다.

『월령』에서는 농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正月에 농가가 준비해야 할 農具들을 제시하고 있다.

C₁. 中犁·小犁·犁口及 景鐵並人鍤 虎齒把 鏤屎 (『農家月令』備農器)

위의 사료 C₁에서는 두가지 犁의 종류와 그 부품인 犁口·景鐵이외에도 여러 가지 農具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犁의 한 부품인 犁口는 토양을 갈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鏟이며 景鐵은 갈아일으킨 토양을 한쪽으로 넘기는 鏟이다. 그렇다면 우선 中犁와 小犁의 사용례를 통해서 형태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C₂. 以中犁起茅蕪盛之田 播木麥則 茅蕪絕不生 (『農家月令』七月立秋)

C₃. 擬種大豆田播時 不以虎齒而以木犁淺耕兩間 水荇與 糖與麻種 (『農家月令』二月節 驚蟄)

위의 사료 C₂는 잡초가 무성한 밭을 中犁로써 耕起作業하고 난후 木麥을 파종하면 잡초가 제거된다고 하였다. 즉 잡초가 무성한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잡초를 제거함과 동시에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켜 木麥을 파종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사료에 나타난 耕起作業은 全面反轉耕이 분명하고 여기에 사용된 中犁 역시 景鐵(鏟)을 장치한 有鏟犁임이 분명하다. 한편 사료 C₃는 大豆田에 보리(麩)를 間種하는 경우이다. 즉 間種穀의 파종구를 만드는 데에 小犁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小犁는 鏟

을 부착하지 않은 作條犁였을 것이다. 이처럼 中犁·小犁라고 각각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조선전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大犁도 존재해 오고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大犁는 산지나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秋耕이나 春耕의 경우라도 지력유지나 畝를 만들기 위한 全面反轉耕에는 有鏟犁인 中犁가 그리고 파종구작성이나 兩則攪土耕에는 小型의 作條犁인 小犁가 사용되었다. 그외의 산지개간이나 황무지개간에는 조선전기 有鏟犁인 ‘보’에다 별을 데어낸 ‘가데기’와 같은 大犁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조선전기 大犁의 犁에 의한 일관된 耕起作業이 그 사용처에 따라서 大犁·中犁·小犁로 각각 분화 발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보다는 약간 후기의 사료들이지만 지형이나 토성에 따라 犁의 종류도 다양하였음을 보여 준다.

C₄. 今峽用兩牛犁 埜用單牛犁 皆所以起土 起土之後 更無他物 峽犁亦各不同 埜犁亦各不同 (『北學議』內篇 農器六則)

C₅. 今見我國 峽鑿隨厚並駕兩牛 湖鑿……尖小只駕一牛 是皆量地增減 隨俗通變者也 (『課農小抄』農器, 犁)

이른바 평야지대에서는 대개 한마리 소가 끄는 犁가 사용되고 산간지대에서는 두마리 소가 끄는 犁가 사용되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 犁를 끄는 소의 수나 보습의 모양도 각각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록 18세기의 사료들에서 지적된 것이지만 17세기에도 역시 지역이나 지형에 따라서 그와 유사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력농구인 並大鍤·鏤屎²⁴⁾·虎齒把 등이 함께 농가의 기본농구로써 사용되었다. 이는 조선전기 犁로써 耕起作業을 할 수 없었던 곳에 사용된 사모와 함께 점차 인력농구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並大鍤은 물고랑을 치는 데 사용되었고 랭이의 우리말 표현인 鏤屎는 耕起作業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24) 민성기는 ‘鏤屎’에 대해서 尿를 베끼는 과정에서 오기로 보고 금일의 랭이로 추정하였다. (민성기 “『農家月令』과 16세기 農法”, 釜大史學 9, 1985, p. 286) 그러나 16세기말 서울양반 오희문의 임진왜란 피난일기인 『쇄미록』에서도 분명히 ‘果屎’라는 농구표기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오기가 아니라 당시 널리 행해지던 표기법이었던다고 생각된다.

2. 鋤의 형태

17세기 鋤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사료는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18세기 사료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鋤의 형태가 어떠했는가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C₆. 鋤호미 除草器也 陸田立耘 故鋤柄長 卽所謂 穧鋤也 東俗水陸田皆坐耘 鋤柄甚短 (『海東農書』卷 2 農器)

C₇. 今薊黍葉短柄鋤 不知起於何時 觀其鋤…… 遂草而拔之壯夫一日之役 不過五六畝 (『北學議』內 篇 農器六則)

C₈. 牟麥根耕之法 自是通行之農方 而不如代穧之 爲妙 所謂代穧者 牟麥之畝 而以鋤括土 種以豆太 鋤 以代穧之稱也 (『千一錄』卷 8 農家總覽)

위의 사료들은 비록 18세기 사료들이지만 모두 短柄鋤으로써 鋤地作業을 하고 있다. 특히 이는 18세기 후반의 사정으로 생각되고 그 이전에는 대개 서서 鋤地作業을 할 수 있는 長柄鋤를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²⁵⁾ 또한 사료 C₆은 根耕法이 이미 관행

되는 농법이라 지적하고 그보다 토지이용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작부체계로서 間種法인 代穧法을 권장한 내용이다. 그런데 間種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소형의 作條犁에 의해 행해졌지만 이제 短柄鋤으로써 파종구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민성기는 穧대신 鋤으로써 파종구를 만드는 방법이라 하고 이를 쟁기대신 호미로써 파종구를 작성한다고 잘못 해석하였다.²⁶⁾ 그러나 『海東農書』에는 “鋤柄長 卽所謂穧鋤”라 하여 여기서 말한 穧(鋤)는 바로 長柄鋤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作條犁에 의해 파종구를 작성하였다가 17~18세기초에는 穧鋤라는 長柄鋤로 대체되고 18세기후반에는 短柄鋤에 의해 파종구가 작성되는 집약적 농법으로 전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위의 사료들을 통해서 볼 때 短柄鋤에 의한 집약적인 鋤地作業은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며, 그 이전에는 대개 長柄鋤 위주의 鋤地作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특히 17세기 鋤地法은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 역시 長柄鋤에 의한 鋤地作業

〈표 1〉 17세기 犁耕 및 鋤地法의 형태와 그 전환

시기 농법	조 선 전 기	17 세 기
犁 耕	① 春耕이 지배적, 秋耕은 예외적으로 행해짐 ② 播耕·旋耕·翻耕 등 全面反轉耕도 부분적으로 행해짐 ③ 兩則攙土耕이 지배적임 ④ 犁耕에 의한 제초작업의 省力化가 널리 행해짐 ⑤ 畜力耕犁는 양반사대부의 독점물	① 有鑷犁의 보급확대로 全面反轉耕이 널리 행해짐 ② 春耕-秋耕의 체계가 일반화 되기 시작함 ③ 作條犁에 의한 제초의 省力化는 계속 유지됨
法 의 形 態	① 2 牛견인의 大型 有鑷犁 존재 ② 보(犁)·'긱'(耕畦犁)·'발외'(把犁) ③ '보'에다 鑷을 부착하지 않은 大型의 作條犁가 지배적으로 사용, 소형의 것은 예외적	① 大犁·中犁·小犁로 분화됨 ② 中犁와 小犁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됨 ③ 有鑷犁가 널리 보급됨 ④ 지역이나 지형에 따라 犁가 다양화됨
鋤 地	① 長柄鋤·短柄鋤가 병존: 전자가 지배적으로 사용됨 ② 조방적인 鋤地作業 진행됨 ③ 短柄鋤는 定料 등의 작업에 만예외적으로 사용됨	① 여전히 長柄鋤에 의한 鋤地作業이 계속됨 ② 木花田과 같이 특수한 圃田만이 부분적으로 집약화됨
地 法 의 形 態	① 鑿(거흙한산): 短柄鋤 ② 鋤(호미서) } 長柄鋤 ③ 鑿(호미확) ④ 鑿(호미자) ⑤ 鑿(호미기)	① 長柄鋤에서 서서히 短柄鋤로 이행하나 여전히 長柄鋤가 지배적임 ② 間種法에서의 播種溝 작성이 作條犁에서 長柄鋤로 바뀜

25) 이에 대해서는 李鎬澈의 「朝鮮前期의 鋤地農法」(전국역사학회 제 29발표요지문)을 참조할 것.

26) 민성기, “이조러에 대한 일고찰(하)”, 歷史學報88집(1980), pp90~91.

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 분명하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犂耕과 鋤地法 및 그에 사용된 농구의 분화와 발전을 토대로 17세기 농법의 전환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조선전기의 耕起作業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축력견인의 犂耕에 의해 일관되어 행해졌다. 이른바 春耕과 秋耕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秋耕은 선진적인 농업지역인 삼남지방에서는 일부 우등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秋耕이나 春耕의 初耕으로 행해졌던 掩耕과 같은 지력유지를 위한 全面反轉耕은 부분적인 것이었고 보다 넓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春耕으로서 作條犂에 의한 兩側攪土耕이 주로 행해졌던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根耕法 역시 행해졌지만 아직 시비기술이 저위한 단계여서 有鑿犂에 의한 全面反轉耕은 부분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有鑿犂와 作條犂가 병존하였지만 대부분의 耕起作業에는 作條犂로써 신속하게 많은 토지를 경작하는 조방적인 耕起作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耕起作業에 사용된 犂에는 대형의 有鑿犂라 생각되는 ‘보’ (犂) ‘발외’ (把犂) ‘괘’ (耕畦犂)의 3가지 종류가 있었다. 이들 중 ‘보’에다 鑿을 떼어낸 가대기와 같은 대형의 作條犂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었고 그나마 이러한 耕犂는 9인이 대신 끌 정도로 무거운 대형의 것이었으므로 아마 양반사대부가의 독점물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조선전기 鋤地作業에는 5종류의 鋤地具가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鑿을 제외한 4종은 모두 長柄鋤일 뿐 아니라 ‘荷鋤’·‘長鋤’라 하듯이 長柄鋤에 의한 鋤地作業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일한 短柄鋤인 ‘거훤한’ (鑿)은 定科와 같이 長柄鋤로써는 불가능한 작업에만 예외적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鋤地作業의 노동력 부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축력의 作條犂도 鋤地作業의 한 몫을 담당하였다. 이른바 한마리 소가 끄는 作條犂로써 배토·제초등의 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토지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인구는 적었던 시기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방적인 농법이 가장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

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大型의 作條犂가 지배적인 犂耕과 長柄鋤에 의한 鋤地法이 이루어져 조방적인 농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17세기 접어들어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되었던 有鑿犂가 확산 보급되면서 秋耕과 春耕의 체계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종래 大型의 作條犂에 의한 조방적인 犂耕이 행해졌던 조선전기적 상황에서 大犂·中犂·小犂로 분해되어 일반 농작업에는 中犂와 小犂가 사용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中犂는 鑿을 장치한 有鑿犂로써 秋耕作業과 春耕의 初耕으로서 시비와 관련되어 지력증진을 위해서나 畝를 만들기 위해서 全面反轉耕에 사용되었다. 小犂는 파종구작성이나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한 제초작업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 반면에 조선전기 耕起作業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大型의 犂는 이제 개간작업이나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有鑿犂의 보급으로 全面耕이 확산되어 秋耕 뿐만 아니라 春耕에 있어서도 대개 再耕 이상을 거치면서 初耕은 有鑿犂에 의한 全面反轉耕을 행하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점차 토지생산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것은 특히 犂가 大犂·中犂·小犂로 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지형에 따라서 효과으로 耕起作業할 수 있도록 犂를 끄는 소의 수나 보습의 모양도 다양하게 발전한 것이 그 토대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犂耕作業에서의 집약화방향과는 달리 鋤地作業에서는 ‘火耨法’ ‘反種法’ 등과같이 노동생산성만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특히 17세기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移秧法도 역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木花와 같은 일부 무田作物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鋤地作業이 심화되어 점차 집약적인 鋤地作業으로 전환되어 가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역시 長柄鋤와 作條犂에 의한 노동생산성 위주의 작업이 계속되어 鋤地作業에 있어서는 조선전기적 농법이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代耨法과 같은 집약적인 농법이 행해진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먼저 조선전기에 作條犂에 의하던 것이 耨鋤라는 長柄鋤로 대체되고 18세기 후반에서야 비로소 短柄鋤에 의한 집약적인 농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결국 17세기의 農法은 한편으로는 犁의 분화와 발전에 따른 토지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방향으로서는 ‘火耨法’ ‘反種法’ 과 더불어 長柄鋤위주의 노동생산성 제고의 농법이 유지되는 조선전기적 조방적 농법의 연장선상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17세기의 농업은 18세기 후반의 집약적 農法과 조선전기의 조방적 농법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띤 과도기적 농법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법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의

형태를 추정해보자. 조선전기에는 양반층의 농장경영이 당시 사회적 생산력을 대표하고 있었으므로 소농민 경영은 그 존재가 미약했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집약적인 농법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소농민경영도 부단히 자기 기반을 마련할려는 노력이 계속되지만 조방농법 단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단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7세기에는 소농민경영은 여전히 불안정성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引用 文 獻

I. 조선시대 農書

農事直說 杓陽雜錄 撮要新書

農書(海月軒本) 農家月令 農家集成 閑情錄

北學議 課農小抄 應旨進農書 海東農書 千一錄

II. 저서

金容燮, 朝鮮後期 農業史研究(I)(II), 一潮閣, 1970.

金光彦, 韓國農器具巧,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李鎬澈, 朝鮮前期 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金榮鎮, 朝鮮時代前期農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李春寧, 李朝農業技術史, 韓國研究院, 1964.
문화공보부, 한국의 농기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III. 논문

李鎬澈, “朝鮮前期 旱田農法의 展開와 그 性格” 慶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41 (1986).

李鎬澈, “朝鮮前期의 水稻作法考”, 경북대 동양문화연구11집 (1984).

閔成基, “東아시아 古農法上의 耨犁考—中國과 朝鮮의 耕種法比較”, 釜山史學 6 (1980).

閔成基, “李朝犁에 대한 一考察(上)(下)”, 歷

史學報88 (1980).

閔成基, “朝鮮後期 旱田輪作農業의 展開”, 釜大史學 6 (1982).

閔成基, “[農家月令]과 16세기의 農法”, 釜大史學 9 (1985).

洪在杰, “[農家月令]巧”, 東洋文化 6. 7 (1968)

宮嶋博史, “李朝後期農業の研究”, 人文學報43 (1977).

宮嶋博史, “李朝後期における朝鮮農法の發展” 朝鮮史研究會論文集18 (1980).

宮嶋博史, “朝鮮農業史上における十五世紀”, 朝鮮史叢 3 (1980).

林和南, “李朝農業技術の展開”, 朝鮮史叢 4 (1981).

飯沼二郎, 堀尾尚志, 農具, 法政大學出版局, 1984.

西嶋定生, 中國農業經濟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66.

農林省熱帶農業センター, 舊朝鮮における日本の農業試驗研究の成果, 東京: 農林統計協會, 1976.

天野元之助, 中國農業史研究, 御茶の水書房, 1979.